

빌레레 메티에 다르 빙초탄

블랑팡은 메티에 다르(**Métiers d'Art**) 컬렉션을 통해 워치메이킹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고대 장식 기법을 구현하는 예술가들의 노하우를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혁신을 꾀하고 있다. 올해 블랑팡은 일본 기슈(**Kishu**) 지역의 우바메가시(**Ubamegashi**) 참나무로 만든 숲 빙초탄(**Binchōtan**)을 적용한 최초의 다이얼을 선보인다.

빙초탄은 400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방식을 사용해 만드는 일본 숲이다. 섭씨 1000 도에서 1300 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의 점토 화덕에서 우바메가시(**Holm oak**)를 천천히 연소시키며 형성되는 밀도 덕분에 탁월한 퀄리티를 자랑한다. 빠르게 식힌 후 다시 빠르게 태우는 과정을 통해 나무 껍질을 재료 태워내 철(**steel**)의 표면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강도를 지니는 부드러운 표면이 만들어진다.

뛰어난 정화 능력으로 잘 알려진 빙초탄은 장식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거의 없다. 블랑팡은 이 소재를 유일무이한 시리즈를 통해 새롭게 표현한다. 블랑팡의 매뉴팩처, 르 브라쉬(**Le Brassus**)의 메티에 다르(**Métiers d'Art**) 워크숍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매뉴팩처의 장인이 이 17 세기 일본 기법을 다이얼 소재로 사용한 것이다. 맨 처음 빙초탄을 세척한 후 깔끔한 디스크 형태로 잘라내면 표면이 드러난다. 그 표면이 시간이 흐르며 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겹으로 옷칠을 한다. 다양한 컬러의 옷칠로 정교하게 데커레이션 하기 전 빙초탄의 자연스러운 무늬와 아름다운 컬러를 부각시키기 위해 디스크들을 폴리싱 처리한다. 그리고 나서 블랑팡은 2015 년 처음 소개한 일본 샤쿠도(**Shakudō**) 기법을 사용해 손으로 인그레이빙하고 자연스러운 녹청(**patina; 파티나**)을 입힌 골드 애플리케이션을 다이얼에 올린다.

그리고 *그랑피*(**Grand Feu**) 에나멜링과 함께 인그레이빙한 다이얼에 빙초탄을 상감 세공해 장식적인 요소로 적용한다.

새로운 *빌레레 메티에 다르 빙초탄*(**Villeret Métiers d'Art Binchōtan**) 시계는 블랑팡의 창의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동시에 워치메이킹 기술력과 노하우를 강조한다. 이 유니크한 모델들은 42mm 사이즈의 레드 골드 더블 스텝 케이스로 선보이며 13R3A 칼리버를 탑재하고 있다. 무브먼트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백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, 브릿지 사이에서 8 일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다.